

구례, 친환경 유기농업 도시 만든다

복합타운 설립 등 인프라 조성 600억 투입

직불금 추가 지급·출하장려금 등 지원 확대

구례군이 올해 친환경농업도시 선포 5년을 맞아 농림예산 600억 원을 투자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구례군 본예산에서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약 20%로 친환경농업도시를 선포한 2017년 4월 이후 185억 원이 증가했다.

구례군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 경영안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사업으로는 180억 원을 투입해 친

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설립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유기농업체험시설, 유기농 및 마케팅 센터 등을 조성한다.

지난해 구례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1%인 1,126ha다. 구례군은 올해 친환경인증 면적을 1,283ha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유기농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유기농 농가에는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친환경 벼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도

지원한다. 새끼우렁이·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과수·시설원에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업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이·애호박·산수유 등 주요 특산물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오이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애호박 인큐베이터 설치를 지원한다. 시설감자·우리밀·논콩 등 특화소득작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농어민 공익수당,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379억 원 규모로 지급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2024년까지 기금 50억 원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만20세에

서 만75세까지 여성농업인 2,300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온풍기, 임산물 가공장비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돕는다.

귀농귀촌인에게는 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유기농업은 구례군의 주요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다”며 “친환경유기농업복합타운 조성, 특화작물 육성, 농업인 경영안정 등에 다각적으로 투자해 친환경유기농업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여수미술관 ‘임인년 흑호’ 전

내달 12일까지 26점 선배

호랑이 용맹·강인함 조명



여수미술관이 오는 2월12일까지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용맹함과 강인함의 표상인 ‘호랑이’를 조명하는 신년 기획전시 ‘임인년 흑호’전을 연다.

임인년은 육십간지 가운데 39번째로, 임은 십간의 아홉 번째로 오방색 중 흑색에 해당된다. 그래서 올해는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이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설화나 민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이다.

호랑이의 친척적인 기세가 담긴 한반도의 모양과 함께 고대 단군신화에서부터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왔다. 또한 잡귀를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부적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호랑이그림을 벽에 거는 관습이 있는데 조선후기에 관청문 앞에는 새해를 축복하는 의미로 추정되는 용호도를 걸기도 했다.

여수미술관은 2018년부터 해마다 신년을 맞아 기획전시 피전을 준비했다.

/우성진 기자



다. 이번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임인년 흑호’전을 개최, 서울·전주·경주·여수 등 전국의 작가 24명과 여수시 민작가 2명의 참여로 호랑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담은 개성 넘친 작품 26여점을 선보인다.

여수미술관 서봉희 관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곧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보성,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 추진

보성군이 2022년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숲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역사성을 띄고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읍·면에서 현장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제출하면 군에서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읍·면별 1개소씩 총 12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보성군은 방치된 산림 자원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민 생활 밀착형 숲 생활권 조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산림분야 근로자를 투입해 현장 여건에 맞게 숲을 정비한 후 나무와 야생화 등을 심고 건강 쉽터 및 휴게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여수, ‘분양권 전매 조사 결과’ 통보

여수시가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편법중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

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중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분양권 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가 서로 달라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16명은 경찰서에 통보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곡성군 옥과사과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서 오는 30일까지 직거래 행사를 갖는다. /곡성군 제공



순천시가 민관합동으로 신축 아파트 등 공사현장 54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나섰다. /순천시 제공

옥과사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입점

당도 높고 식감 뛰어나 호평 전국 품평회서 장려상 수상

곡성군의 대표 특산물 옥과사과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서 설맞이 인기몰이에 나섰다.

곡성군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서 오는 30일까지 펼쳐지는 설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표 특산물 옥과사과를 내세웠다고 17일 밝혔다.

옥과사과는 식양토에서 재배해 당도가 높고 식감이 뛰어나며, 빛깔이 우수하고 아삭하게 씹히는 신선한 감촉이 오랫동안 지속돼 호평을 받고 있다.

옥과사과는 2017년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 가락시장 ‘전국 사과 품질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과 각 지역의 농협을 통해 유통망과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설 명절 옥과사과가 최고의 명절선물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맛과 품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순천, 공사현장 54곳 긴급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반 구성

순천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건축공사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은 순천시 공공발주 공사현장 27곳, 신·증축 중인 민간공사 현장 15곳, 신축 아파트 건축현장 12곳 등 총 54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관리부서 관계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단, 유관기관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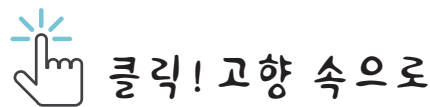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굴착·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성, 주요부재의 변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겨울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안전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행위 및 중대위해요소가 적발된 현장에는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순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긴급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시공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여수 좌수영새마을금고, 백미 180포 후원

여수 좌수영새마을금고가 최근 대교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백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좌수영새마을금고는 5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180포를 후원했으며, 후원 물품은 대교동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택택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 소외된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좌수영새마을금고는 매년 ‘동절기 독거어르신 연탄 배달 봉사’를 비롯해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광양 금호동, 청정전남 ‘우수마을’ 현판식

광양시 금호동이 최근 장미연립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전남 으뜸마을사업 ‘우수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실시한 시책사업이다.

장미연립아파트 주민들은 폐보도블

록을 이용해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고 가꿨으며, 마을 재활용 쓰레기집적장 주위에 화단을 조성해 현장 평가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수정 반장은 “마을주민의 화합으로 마을이 아름답게 변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을 봄에도 예쁜 꽃들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보성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보성교육지원청이 최근 마을학교 대표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보성마을학교는 도 지정 마을학교 1교, 군 지정 마을학교 7교로 총 8교가 운영되며,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을학교의 비전과 목표 수립 및 활동 계획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눴다. 특히 혁신학교 교사 4명을 컨설턴트로 위촉해 컨설팅

트와 마을학교를 멘토-멘티로 매칭했으며, 각 마을학교의 특성을 살린 운영 지원 기반을 촘촘히 다졌다.

도 지정 봄이 마을학교 이승현 대표는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